

# 적그리스도 출현소동

거짓의 한날개가 죽이다.

주 예수께서 일찍이 이렇게 가르치셨다.

눅12:1 그동안에 무리 수만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12:2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12:3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교의 적대자들 박해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그리스도 공동체를 혼돈케 해왔던 자들은 이렇게 골방에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두 가지 거짓말을 말했다.

1]시티는 통일협회이다

2]시티는 적그리스도 집단이다.

어두운데서 흑막과 그의 하수인은 여기저기 사람을 불러 골방에 모아놓고 이렇게 속삭였다. "이제 늄대가 왔다. 지금 와 있다"고 양치기 소년처럼 외쳤다. 그래서 크리스천 투데이 (이하 CT)를 사랑하는 자는 걱정하고 CT를 모르는 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참소자는 이런 혼란을 보면서 쾌재를 부르면 서로 악수하고 다시 다른 음모를 꾸몄다. 그리고 거짓 증언을 위해 공개적인 웹에서 확산하고 토론의 방으로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중상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 초점은 두 개였다.

1]시티는 통일협회이다.

2]시티는 적그리스도를 믿는 집단이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생겨났다. 참소자가 만든 홈페이지에 CT의 지지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들이 하나하나 이 괴기한 공격의 원인과 사실관계를 물어갔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어느 관전자가 중간 결론을 이끌어냈다.

①韓国クリスチャントゥディ創刊

②韓国CTのライバル紙NEWSNJOYがCTに統一疑惑をかける

- ③日本クリスチャントゥディ創刊
- ④日本CTのライバル紙クリスチャン新聞（根田氏）が②を発見、JEAに情報提供
- ⑤JEA、加盟教会にCT統一疑惑のFAXを流す（理事会を通していない）
- ⑥FAXを読んだ山谷少佐、⑤を自分ねブログに書く
- ⑦そのころ、韓国で統一疑惑が晴れ、JEAにも文書が届く。
- ⑧しかし、JEAは訂正文書を流さず
- ⑨その頃、ムネ氏の母が⑥を読んでムネ氏のノートを山谷少佐に提供（ここにも根田氏関与？）
- ⑩山谷少佐、ブログでCT攻撃
- ⑪論争が2ちゃんねるに波及
- ⑫2ちゃんねる一に色々突っ込まれ、①-⑪が徐々に明らかに
- ⑬山谷少佐と根田氏、疑惑を世界に広めるために各地にメール
- ⑭メールを受け取った人たちがそれをCTに転送
- ⑮山谷少佐の裏で根田氏が動い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

이렇게 되니 자연이 그들의 한 거짓말의 한쪽 날개가 떨어져 나갔다.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골방에서 속삭이면서 음해와 음모를 꾸미던 그 세력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 “CT는 통일교”다 시티는 적그리스도를 추종한다”는 이 말에 대해 당장 이렇게 관전자는 물어왔다. 단순한 질문과 문제 제기 였다. “그럼 통일 협회 안에 그리스도가 둘이라는 말인가?” 독자는 토론에 참여한 자들은 당장 이 참소자들의 허점을 알아챘다. 그리고 그 참소자가 두 혁를 가졌음을 폭로했다. “CT가 통일교이냐? 그럼 통일협회 안에 재림주가 둘이냐? 그게 가능한지 탈 컬트 협회에 물어봐라” 그런 물음에 어떤 이가 신속히 대답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0퍼센트”라고 말했다. 참소자의 자가 당착 자기 논리의 모순이었다. 사단은 늘 이러하다. 그래서 당황하기 시작했다. 토론이 길어질 수록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흑막과 그 대리인들은 이렇게 구상을 짰다. “둘인데 하나는 아버지 재림주, 다른 하나는 아들 재림주다”라고. 실제로 거짓의 극치에 이르게 되었다. 이 정도에 가면 심각한 논쟁이 코미디가 된다.

그런데 대중은 지혜로웠다. 그런 우스운 논리에 다들 “아니요”하고 대답했다. 아무도 이것을 듣지 않으니 참소자들은 그것을 황급히 덮고 과거사를 캐기 시작했다. 30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그러나 별 소득이 없었다. 기독교는 돌아온 종교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참소자들은 작전을 바꾸었다. ‘이제 안되겠다 하나를 버리자’ 모순의 날개로 우리가 날 수는 없다. 그래서 한 쪽 날개를 스스로 잘라 내었다. 그것이 뭔가. CT가 통일협회는 아니다. 이 한 결론에 오기까지 실로 정말 긴 세월이 필요했다. 흑막이 한국을 선동해서 이 일을 꾸미고 시작한지 3년만이다.

흑막과 참소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CT는 통일협회이다. 그리고 그들은 통일교의 건물을 쓰고 그리고 그들이 지원을 받아 활동한다”고. 그래서 그 거짓정보를 한국에 연락하고 한국의 자기들과 코드가 맞는 언론을 선동해서 한국교회 정치권력을 통해 시티를 압살하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거짓은 2년의 결친 두 번의 조사를 받으면서 끝이 났다. 참소자들의 완벽한 폐쇄였다. 시티는 통일협회가 아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적들은 위에 관전자가 평했듯이 그것이 나오면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의 거짓을 감추려고 그것을 묵살하고 골방으로 사람을 불러 음해하고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진술은 진실에 근거한 진술이다. 정리해 보자 하나를 정리하자. 그 결론은 뭐였나? 그 긴 거짓의 한 날개가 꺽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CT는 통일협회다. 그러니 컬트다” 이제 그 거짓말이 끝이 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요구한다. “이제 그 한 가지만이라도 사과하라”고. 그것은 잘못이었다. 그렇게 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으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사과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침묵하던 자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이런 짓을 한 자들의 동기와 더 나아가서 음모와 음해의 실체를 보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제 사과하라 이제 깨끗히 그 거짓말을 거짓말이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해라.

이 문제가 풀리면 다른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된다. 그런데 참소자들은 흑막과 그 하수인들은 어두운데서 다시 사람을 모으고 속삭였다. “거짓이고 사실은 아니지만 이것을 계속 퍼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많은 이를 유혹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 끈을 놓치마라고...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골방에서 속삭이던 것이 지붕 위에서 외쳐지게 되었다. 이들의 정체는 서서히 드러나고 음해와 음모의 실체가 표면위로 나타나게 되었다. CT는 통일협회가 아니다.

이렇게 되니 한쪽 날개를 잃은 참소자들은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예상했던대로 마지막 더러운 화살을 준비하고 쏘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오늘이 컬트이다. 오늘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집단이다”고 선동하기 시작했다. 정말 철면피 같은 사람들, 후안부치한 사람들이다. 한 가지 거짓말로 지난 몇 년을 그리스도 공동체를 속이고 혼란케한 자들이 이제 회개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고 다른 음모와 음해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이 더러운 화살을 마지막까지 싸워 꺽고자 한다. 이것은 망상을 차원을 넘어서 조직적인 범죄행위이다. 그 실체를 하나 하나 파헤쳐 가고자 한다.

참소자들과의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 논점을 이탈하고 관전자를 착란에 빠트리게 한다. 이미 한 말을 안 들었다고 말하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게임의 룰이 없다는 점이다. 저쪽에서 물어오면 우리는 대답했다. 그런데 대답을 무시하고 대답은 보지 않는 척하고 다시 거짓을 말한다. 그 예가 ‘무네의 일기’다. 그는 그의 노트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명쾌한 답을 했다. “그 답에 대해 너희가 답해”라고 어제 어떤 기자는 말했다. 그랬더니 정말 괴상한 답

이 돌아왔다. 이것이 답이라고. 그것이 무엇인가? 정말 놀라운 것은 다시 다 논쟁이 끝난 것을 다시 끄집어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1]현대종교

2]방각석 일기 (중국 사이트)

3]릭로스라는 반기독교사이트

실로 놀라운 일이다. “그게 다야. 여기 저기 비웃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정말 화살이 다 떨어졌군. 그리고 정말 궁색해 졌군”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분별없는 짓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단으로 날조하고 마녀사냥을 하려는 상업적인 그리고 사이버테러리스트 같은 동기가 숨어 있었구나를 알게 되었다. 어떻게 수십만 대답한 것을 6개월간 반복해서 다시 묻나? 그 만큼 자료가 없고 궁색하다. 수십 번 대답했는데 말이야. ‘솔라 그라시아’(Sola Gratia / <http://solagratia01.blogspot.com/>)만 봐라! 이곳에서만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다! 현대종교의 마지막의 사과기사 한 부분을 보여주겠다.

“그러나 기자는 많은 고심 끝에 비록 한편에서 비난이 쏟아진다고 해도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면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알릴 것은 알려야 한다는 소신으로 이제 과거 문제가 되었던 한빛대학생선교회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제 장수진 목사와 한빛대학생선교회의 판단은 일차적으로 그 소속 교단의 책임과 몫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현대종교 2000년 7/8월 합본 호에 개재 된 “이해와 합력으로 복음의 길을”이라는 당시 심우영 편집국장의 사과 정정기사)

이렇게 정리된 것이다. 기자의 양심에 따라 정리된 것이다. 그리고 방각석 일기는 이단의 공격이라고 했다. 그들이 스스로 다 지우고 사죄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릭로스라는 사이트이다. 이 논쟁은 끝까지 그리고 즐기면서 받아줄 수가 있다. 그 만한 자료가 있고 증거가 있다. 그러나 오늘은 일단 지난 번에 적은 것을 다시 가져와 보자. 이렇게 정리된 것이다.

릭로스는 누구인가 그는 위에 사이트에 그의 인격이 나와있다. 유대인으로 반기독교적인 인물이고 많은 문제를 야기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기독교 공동체를 공격하는가 하는 것이 고스란히 이곳에 다 나와있다.

(<http://www.religiousfreedomwatch.org/religious-experts/false-experts/rick-ross>)

수도 없는 단체들을 새 컬트(new cult)로 만들어가는 자이다. 이것을 보라. 그의 사이트에는 유명한 교단 단체도 새 컬트가 아니고 파괴적인 컬트로 나와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렇게 나와있다. 그러므로 일단 묻겠다.

CCC / AG / YWAM / HillSong 이 그의 분류대로 파괴적인 컬트(Cult)인가? 아닌가? 만 먼저 말하라. 그것부터 대답을 듣고 싶다.

두 번째 그 익명의 토론판에 얼굴 없는 자들의 면면과 주장을 보자. ACM에 대한 토론을 보자.

1] 어떤 말레이시아인 하나가 자기가 ACM을 비난하고 그는 도망갔다. 그러면서 사이트 관리자에게 자기가 쓴 것은 잘못이니 지워달라고 했다. 그럼 문제 제기자가 문제제기가 지워지면 끝이 나야 한다. 그런데 관리자는 지우지 않았다. 그리고 대신 hello라고 올려 놓았다. 이게 말이 되는가! 원초 문제 제기자가 회개하고 사라졌다. 이런 토론의 시작이 있나? 그는 어디에 있나를 말해보라.

2] 그것을 보고 아프리카의 ACM의 양을 빼가려는 이단의 자들이 와서 ACM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마지막에 말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수다한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CD가 있다” 그리고 “어디에 기독교 단체 사무실에다가 두었다” “그것은 복음주의단체의 어디이다” 그리고 “복음파 지도 목사 중에 유명한 사람이 돋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단체와 이름을 도용했다.(솔라그라시아 <http://solagratia01.blogspot.com/참조>)

그래서 도용을 당한 단체와 인사가 항의했다. 그리고 수사를 들어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1-2명의 이단이 소란을 피운 것이다. 그러자 미국에서 어떤 자가 나타났다. 그는 자기를 미국인이라고 속였다. 그런데 그는 알고 보니 아프리카인이였고, 아프리카인을 돋기 위해서 자기가 글을 적었노라고 했다. 이미 늦었는데도 말이다. 그도 소란을 피우다가 사라졌다. 이게 ‘토론판’의 결론이다.

3] 이런 혼란은 선교단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다. 선교방해를 방해하는 펍박자들은 늘 어디에나 있다. 그런데 이런 대학생선교회의 문제를 가져다가 자기 거짓을 덮는 증인으로 삼으려는 것이 어디 통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제는 부끄럽지만 세상법정에서라도 이게 증인이 되는지 판단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 얼굴 없는 토론판에서 말한 증거가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증거가 될 수 없다. 적어도 교회의 법정에서는 일찌기 우리는 [신명기 19장]에 말한 대로 명확한 증거자를 대야 한다.

그런데 얼굴을 보이는 증거자는 나오지 않았다. 일본에서 나온 소위 탈회자라는 자들은 “우리는 모르지만 저들은 비밀주의가 있는 것 같으니 그 안은 적그리스도적인 교리가 있을 거야”라고 추측만 했다. 한 가지의 증거도 없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상담하는 자들이 그들을 세뇌해서, 곧 프로그래밍해서 희유한 증거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범죄행위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묻는다. 참소자들은 답해라. 통일교라고 음해한 것을 깨끗히 사과해라.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CT가 적그리스도 집단”이라고 말하는 똑바로 된 증인이 어디있느냐? 그것부터 답하고 테리고 나와라.

그들을 테리고 와라. 그를 내세워라. 교회의 법정이나 세상의 법정에 세워서 가리자. 그래서 그의 말이 위증인지 아닌지를 가리자. 우리는 얼굴 없는 자들의 음해요 위증이라고 했다. 이제 얼굴을 내세워서 이름을 내세워서 답해야 할 때가 되었다. 거짓 참소자가 말하듯이 이게 사실이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 이제 당당히 그들을 이름을 밝히고 테리고 나와라. 숨지 말라. 숨기지 말라. 골방에서 속삭이지 말라. 감추지 말라 그리고 도망가지 말라. 이게 도망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골방에서 음해하거나 근거 없는 말을 웹(web) 상에서 선동하지 말고 다시 말하지만 증언자를 테리고 교회의 법정이나 세상의 법정으로 나오라. 그래서 가리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말했다. ‘무네의 일기’(<http://only-jesus.blogspot.com/>)와 ‘솔라 그라시아’(<http://solagratia01.blogspot.com/>)가 그것의 충분한 증거이다. 모든 것을 다 답했다. 부족함이 없이 말했다. 그러니 이제 흑막과 그의 하수인들은 말하라.

이제 참소자들은 마지막 남은 교회정치권력을 사주해서 언론압살에 나설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서고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